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A MIDWINTER NIGHT'S

DREAM

KBS교향악단 제799회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4.2.24.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C장조, K.314
W. A. Mozart Oboe Concerto in C Major, K.314

🕒 22'

1악장 빠르고 개방적으로 (8')
Allegro aperto

2악장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8')
Adagio non troppo

3악장 론도 : 조금 빠르게 (6')
Rondo : Allegrett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8번 c단조, 작품65
D. Shostakovich Symphony No.8 in c minor, Op.65

🕒 61'

1악장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빠르게 - 매우 느리게 (23')
Adagio - Allegro non troppo - Allegro - Adagio

2악장 조금 빠르게 (6')
Allegretto

3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7')
Allegro non troppo

4악장 느리고 장중하게 (10')
Largo

5악장 조금 빠르게 - 매우 느리게 - 조금 빠르게 (15')
Allegretto - Adagio - Allegretto



MICHAEL SANDERLING

CONDUCTOR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잔데를링은 포츠담 체임버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수석지휘자로 취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예술감독직을 수행했다. 2011부터 2019년에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수석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임기 동안 드레스덴 시에서 다양한 형식의 무대에 오르고 많은 해외 투어에 나서며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독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오케스트라로 발돋움시켰다. 잔데를링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특별한 협업은 소니 클래식에서 발매한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곡 앨범에서 잘 드러난다.

잔데를링의 방대한 디스코그래피에는 드보르자크, 슈만,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의 주요 작품 및 베토벤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곡 녹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워너 클래식을 통하여 에드가 모로와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블로흐:코른골트:브루흐:라벨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들을 발매했다. 오페라 분야에서 잔데를링은 쾰른 오페라하우스에서 새로이 제작한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의 지휘를 맡아 월간지 <오페른벨트(Opernwelt)>에서 올해의 지휘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하엘 잔데를링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수년간의 성공적인 협업 끝에 21/22 시즌부터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잔데를링의 목표는 루체른 심포니에서 부르크너,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후기 낭만파 작곡가의 레퍼토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즌에서 잔데를링은 유럽과 남미 투어는 물론 음반 발매에도 힘쓸 계획이다. 워너 클래식에서 발매된, 브람스의 4개의 교향곡과 쇤베르크가 편곡한 피아노 사중주곡이 실린 'Brahms: The Four Symphonies'은 잔데를링의 취임이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했다. 잔데를링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스티븐 이설리스, 첸 라이스, 르노 카푸송, 에드가 모로, 바딤 글루즈만, 요아브 레바논,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등의 연주자와 협연한 바 있다.

잔데를링은 세계 유수의 관현악단에서 객원 지휘를 맡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잔데를링은 베를린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파리 관현악단, NHK 교향악단, 톤할레 오케스트라, 토론토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특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과는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주기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23/24 시즌에는 루체른 심포니 이외에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을 처음으로 지휘할 예정이며, 드레스덴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BBC 스코틀랜드 교향악단 등등의 오케스트라와 재회할 예정이다.

잔데를링은 또한 젊은 음악가를 지원하는 데 열정적이다.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을 비롯해 독일 연방 청소년 오케스트라, 독일 청년 오케스트라, 쉐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3부터 2013년에는 도이체 슈트라이커필하모니 유스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Jean-Baptiste Millot

FRANÇOIS LELEUX, OBOE

오보에 프랑수와 틀뢰

"프랑스의 오보이스트 프랑수아 틀뢰같이 엄청난 카리스마와 음악성을 보유한 지휘자 겸 솔로 리스트가 무대에 서면 장점이 배가된다." - The Arts Desk (영국의 문화 웹매거진)

지휘자 겸 오보이스트 프랑수아 틀뢰는 넘치는 활력과 패기로 유명하다. 이전 경력으로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의 예술 파트너, 파리 실내악단의 협력 예술가,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프랑스 국립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베른 심포니, 노르웨이 체임버 오케스트라, 테네리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상주음악가로 활동한 바 있다.

틀뢰는 연주자 겸 지휘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티 교향악단, 라인란트 팔츠 국립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프란츠 크로머의 오보에 협주곡 제2번을 비롯한 희귀 레퍼토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틀뢰는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명망 높은 플루티스트 에마누엘 파위와 함께 독주자로서 살리에리의 플룻과 오보에를 위한 이중협주곡을 연주하는 동시에 카메라타 잘츠부르크를 지휘하기도 했다. 틀뢰는 이전에 오슬로 필하모닉, 재팬 필하모닉,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굴베키안 심포니,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오보이스트로서 틀뢰는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NHK 교향악단 등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틀뢰는 실내악에도 전념하며, 호평을 받는 목관 6중주단 레 병 프랑세와 리사 바티아슈빌리, 에릭 르 사쥬, 에마누엘 슈트로세 등과 같은 독주자들과 함께 리사이틀을 하는 등 세계 각지의 무대에 오른다.

틀뢰는 오보에 레퍼토리의 확장을 목표로 니콜라스 바크리, 미카엘 자렐, 기야 칸첼리, 티에리 페쿠, 질 실베스트리니, 에릭 탕기 등 많은 작곡가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2021/2022 시즌에는 로랑 프티지라르가 틀뢰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오보에 협주곡 『손오공』을, 2017/2018 시즌에는 특별히 실베스트리니가 잉글리시 호른을 위해 편곡한 드뷔시의 색소폰을 위한 랩소디를, 2016/2017 시즌에는 자렐의 오보에 협주곡 『Aquateinte』를 세계 초연했으며, 2014/2015 시즌에는 북독일 방송교향악단과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슈빌리와 함께 티에리 에스캐쉬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이중협주곡을 세계 초연하기도 했다.

위너클래식에서 발매된 틀뢰의 최신 앨범 『Bienvenue en France』는 에마누엘 슈트로세와 함께 연주한 생상스, 뒤티외, 드뷔시, 티에리 페쿠 등의 20세기 프랑스 음악이 담겨 있다. 틀뢰는 지휘자로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비제와 구노의 작품을 녹음해 2019년에 린레코드(Linn Records)에서 발매했다. 뮌헨 실내악단과 녹음한 훔멜과 하이든의 작품이 수록된 앨범은 2016년 많은 수상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외 다른 앨범으로는 유럽 실내악단과 녹음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녹음한 모차르트의 작품, 다니엘 하딩이 이끄는 스웨덴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보에 협주곡 등이 있다.

2023/2024 시즌에 틀뢰는 릴 국립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스페라 이탈리아나 오케스트라, 스코틀랜드 실내악단, 헝가리 국립 필하모니 관현악단을 지휘하며, 네덜란드 실내관현악단과 함께 로시니를 기념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스웨덴 예블레 교향악단과 재회해 찬사받는 피아니스트 에릭 르 사쥬와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을 다시 녹음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틀뢰는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이끄는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주자로 협연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틀뢰는 현재 뮌헨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C장조, K.314

W. A. Mozart, Oboe Concerto in C Major, K.314

Wolfgang Amadeus Mozart

출생 :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사망 : 1792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작곡연도

1777년

초연

1948년

편성

오보에2, 호른2, 현5부

연주시간

약 22분

1악장 빠르고 개방적으로 (8')

Allegro aperto

2악장 느리지만 지나치지 않게 (8')

Adagio non troppo

3악장 론도 : 조금 빠르게 (6')

Rondo : Allegretto

아마도 고금의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 마르첼로의 것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고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곡이 아닐까. 오보에 협주곡 K.314는 모차르트가 1777년 잘츠부르크에서 작곡했다. 잘츠부르크 궁정악단의 오보에 연주자 주세페 페를렌디스(1755-1802)의 의뢰로 작곡한 협주곡이었다. 그해 11월 만하임에서 모차르트는 이 곡을 명 오보이스트인 프리드리히 람에게 선물했다. 람은 매우 기뻐했다고 기록에 전한다. 이후 모차르트가 빈으로 거처를 옮긴 뒤 에스테르하지 후작을 섬기던 오보이스트 안톤 마이어에게 이 곡의 파트보를 제공했다는 말이 있지만 오보에 협주곡 악보는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1920년 모차르트 연구가 베르나르트 파움가르트너가 모차르트 아들의 유품 중에서 오랫동안 분실됐던 것으로 여겨진 오보에 협주곡의 초고(파트보)를 발견한다. 18세기 빈에서 사보 된 것으로 추측되는 파트보였고 파움가르트너가 스코어를 재구성해 1949년 런던에서 출판했다. 이는 아마추어 플루티스트이자 후원자인 페르디난트 드장이 의뢰했던 플루트 협주곡 2번의 원곡이었다. 마감은 다가오는데 곡을 마치지 못하자 급해진 모차르트는 C장조의 오보에 협주곡을 D장조의 플루트 협주곡으로 편곡해서 납품했던 것이다.

모차르트는 1778년경에도 오보에 협주곡 F장조 K.293(416F)를 작곡했지만 70마디만 쓴 미완성이었다. 2015년 음악학자 로버트 레빈과 윌리엄 드랩킨이 완성판을 냈고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는 고타르트 오더마트가 완성한 알레그로 악장을 앨범에 수록하기도 했다.

빠른-느린-빠른의 빠르기로 된 통상적인 3악장 구성의 협주곡이다. 곡 전체를 보면 높은 음역대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기교를 요구하기에 오보에 협주곡 중에서도 맛깔나게 해석하기 쉽지 않은 곡이다. 악장마다 카덴차가 있지만 모차르트 자신이 쓴 카덴차는 전하지 않는다.

협주풍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의 악상기호는 알레그로 아페르토(Allegro aperto)다. '아페르토(aperto)'는 이탈리아어로 '개방적인'이란 의미다. 날렵하고 말쑥한 관현악이 주요 아이디어를 정리해 쾌활하고 경쾌한 동기로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듯하다. 그 위로 오보에가 으뜸음을 길게 불며 등장한다. 이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오페라 성악가와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오보에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백일청천(白日青天), 즉 맑고 푸른 하늘 속에서 해가 빛나는 화창한 날씨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오보에는 활기차게 개방적인 푸른 하늘 같은 공간 속에서 유평하는 한 마리의 새를 연상시킨다. 상당히 짧고 형식적인 전개부에 이어 카덴차가 귀를 잡아끌며 익숙한 주제로 끝까지 이어진다.

2악장은 아다지오 논 트로포(Adagio non troppo), 침착하게 느리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라는 뜻이다. 진지하고 표현력 있는 이탈리아 양식의 오보에 아리아로, 이미 12개의 오페라를 작곡한 모차르트의 능숙함을 보여준다. 형식 면에서 전개부는 분량이 부족하고, 재현부에서는 제2주제만이 재현되는 변칙적인 소나타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Rondo allegretto)는 론도 즉 반복되는 주제부와 삽입구의 형식에 조금 빠르게 연주하란 뜻이다. 5년 뒤 모차르트가 쓰는 징슈필 '후궁으로부터의 도피'에서 블론테의 아리아 '얼마나 기쁜 일'과 관련 있는 악장이다. 여러 가지 짧고 대조적인 변화들이 있지만 모차르트의 주요 아이디어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곡이 끝나기 전에 100년 넘게 플루트 협주곡으로 더 자주 연주됐던 이 작품의 본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 뒀어야 한다. 플루트보다 중후하고 밀도 높게 들려오는 오보에의 소리로.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협연자 프랑수와 를뢰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8번 c단조, 작품65

D. Shostakovich, Symphony No.8 in c minor, Op.65

Dmitri Dmitrievich Shostakovich

출생 : 1906년 9월 25일, 러시아
사망 : 1975년 8월 9일, 러시아

작곡연도

1943년

초연

1943년 11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4(제3,4플루트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잉글리시 호른,
피콜로 클라리넷, 클라리넷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3(제3바순은
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스네어드럼, 탬버린, 심벌즈, 탐탐,
트라이앵글, 실로폰, 현5부

연주시간

약 61분

1악장 매우 느리게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 빠르게 - 매우 느리게 (23')
Adagio - Allegro non troppo - Allegro - Adagio

2악장 조금 빠르게 (6')
Allegretto

3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7')
Allegro non troppo

4악장 느리고 장중하게 (10')
Largo

5악장 조금 빠르게 (15')
Allegretto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그의 8번째 교향곡이다.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고 쿠르스크 전투에 돌입한 194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작곡됐다.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에 이어지는 교향곡으로 전쟁을 그리기 위한 작품이지만,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5곡 가운데 가장 암울한 분위기로 손꼽힌다. 집필하는 2개월간 쇼스타코비치는 원래 전쟁이 끝난 뒤의 희망을 그리려 했었지만 비참한 전황에 대한 보도나 소식을 접하고 작품이 훨씬 더 비극적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소련 당국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스탈린상을 수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948년에는 '즈다노프 비판'의 대상이 되어, 1960년까지 연주가 금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과거의 음악 기법을 구사한 높은 수준의 작곡법으로 전쟁의 비참함을 그려 요즘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진다.

1943년 11월 4일 모스크바 음악원 그랜드홀에서 예프게니 므라빈스키가 지휘하는 소비에트 국립교향악단이 초연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1944년 4월 쿠세비츠키와 보스턴 심포니의 실황은 이 곡 최초의 음반으로 제작됐다. 이 해에 해외에서 잇달아 연주된 뒤로는 당시의 전황을 반영해 '스탈린그라드 교향곡'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5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는 이 곡의 1악장(느리게-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빠르게-느리게)은 전곡 러닝타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길다. 저역현의 강력한 서주에 이어 당김음을 반주로 한 제1주제가 침통한 표정으로 제시된다. 이어 내성적인 제2주제, 첼로를 주체로 한 멜랑콜리한 제3주제가 차례로 나타난다. 제3주제가 조용히 사라져가는 곳에서 목관이 제1주제의 전회 변형*으로 끼어들고 전개부가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맹렬하게 돌진한다. 현악기의 비통한 제3주제가 전개되기 시작하며 팀파니, 스네어드럼, 트럼펫의 3연음이 더해져 곡은 흥포해져 간다. 목관의 격렬한 트릴을 배후로 금관이 제2주제를 강렬하게 불다가 이것이 폭발하면 셋잇단

음 동기에서 빠르게 속도를 늘린다. 곡은 폭력성과 아이러니함을 함께 띠면서 고조되고, 변박자의 행진곡풍 클라이맥스를 거쳐, 우르릉대는 드럼이 '점점 세계'와 '점점 여리게'를 반복하면서 서두의 서주 주제가 재현된다. 재현부에서는 현악기의 트레몰로 위에서 잉글리시호른이 제3주제, 제2주제의 순서로 긴 솔로를 재현하는 부분이 인상 깊다. 조용히 서주의 동기가 나타나면 트럼펫이 이것을 강하게 불고, 당김음과 함께 제1주제가 현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다소 위안을 더한 느낌의 울림으로 연주하면서 조용히 악장이 끝난다.

2악장은 느린 악장도, 스케르초도 아니고 '알레그레토(약간 빠르게)'의 활기찬 템포로 진행된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부드럽게 행진곡풍으로 진행되는 이 곡은 힘차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단조로운 주제에는 독일 유행가 '로자문데'의 패러디와 자신의 재즈 모음곡 2번의 인용도 눈에 띈다. 가만히 들어보면 건강하기보다는 병적이다. 히스테릭이나 자연적 고양감을 떠올리게 된다. 강렬한 음악이 부자연스럽게 전개된다. 폭주하던 기조는 갑자기 템포와 힘이 느려지고 금관이 마지막 힘을 짜내고 팀파니가 낙하하듯 두들기며 끝난다.

3악장 '빠르지만 서두르지 않으며'는 누구에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쇼스타코비치의 다큐멘터리에도 테마 음악으로 이용되곤 한다. 독창적인 2/2박자 토크타 스타일의 스케르초로 격렬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은 쇼스타코비치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독창적이다. 묘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무궁동*이 비올라에서 시작하여 곳곳의 파트로 전염돼 가며 악장을 통해 거대한 울림을 준다. 목관악기는 찌르는 듯하고 저음역대의 현과 트롬본, 튜바, 팀파니의 췌기를 박는 것 같은 연주가 섬뜩하다. 트럼펫들의 용맹스럽고 활기찬 갈롭(2박자의 빠른 춤곡)을 거쳐 서두의 무궁동 선율이 다시 나타나지만, 음악은 흥포함을 더해간다. 팀파니의 난타와 오케스트라 전체의 가장 강렬한 연주가 전율을 끌어올리며 가장 높은 절정을 구축한다. 중단 없이 다음 악장으로 이어진다.

느린 악장인 4악장 라르고는 브람스 교향곡 4번의 4악장과 마찬가지로 '파사칼리아(반복되는 저음 주제의 변주곡)'로 되어 있다. 탐탐의 강렬한 타격과 함께 저음의 파사칼리아 주제가 강하게 연주되고 서서히 음량이 떨어뜨리면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듯한 변주곡이 시작된다. 서두의 네 변주는 현악기만으로 연주되고 제5변주는 호른 솔로가 명상적이다. 제6변주는 피콜로, 제7변주는 플루트 사중주, 제8변주 이후는 제1클라리넷과 제2클라리넷의 호흡이 교차하는 솔로가 나오고 이승에 이별을 고한 영혼이 승천하듯 그대로 마지막 악장으로 돌입한다.

5악장 알레그레토는 바순이 제시하는 주제에 이어 온화한 종곡으로 연주된다. 마치 현세에서 해방돼 깨달음과 체념의 경지에 도달한 느낌이다. 플루트가 연주하는 작은 새소리나 첼로의 목가를 거쳐 오보에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다 만다. 바순과 바셋클라리넷*이 선율을 주고받고 쾌활한 바이올린 소리로 들린다. 이런 주제가 푸가로 얽히며 전개되다가 다시 1악장의 절정에 나온 불협화음이 대음량으로 울리며 비극으로 돌아간다. 다시 위로하듯 바셋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바순의 독주가 악장 전반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주마등처럼 재현한다. 이윽고 평화를 되찾고 현악기의 피치카토와 플루트의 여운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듯 조용히 사라지며 끝을 맺는다.

글 | 류태형(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칼럼니스트)

* 전회 변형 : 협화 삼화음에서 두 개의 음을 유지하고 나머지 한 개의 음을 최소한 이동하여 전회시키는 변형. 그 결과 장삼화음은 단삼화음이 되고, 단삼화음은 장삼화음이 되는 모드 전환이 일어난다.

* 무궁동 :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움직임

* 바셋클라리넷 : 모차르트 시대에 사용된 클라리넷의 한 종류. 소프라노 클라리넷과 유사하게 생겼으나, 관의 길이가 더 길어 더 낮은 음까지 소리 낼 수 있었다.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

베르디 | 레퀴엠, 작품48
G. Verdi | Requiem, Op.48

소프라노, 서선영
Sunyoung Seo, Soprano

메조소프라노, 방신제
Celeste Bang, Mezzo Soprano

테너, 김우경
Wookyung Kim, Tenor

베이스, 심기환
Kihwan Sim, Bass

연합합창단

2024. 3. 7.(목) 20:00 롯데콘서트홀
2024. 3. 7.(Thu) 20:00 Lotte Concert Hall

2024. 3. 29.(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eoul Arts Center



Feste Romane



로마의 축제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SUMI JO

Soprano
소프라노 / 조수미

PROGRAM

레스피기 / 로마의 축제, P.157
O. Respighi / Feste Romane, P.157

벨리니 /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여" 외 2곡
V. Bellini / "Casta Diva" from <Norma>, and other pieces

레스피기 / 로마의 분수, P.106
O. Respighi / Fontane di Roma, P.106

레스피기 / 로마의 소녀들, P.141
O. Respighi / Pini di Roma, P.141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음악감독/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는 유지인 이소운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클라리넷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현

트롬본

이윤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Éric Lacrouts *

(Opéra National de Paris Orchestra 제2악장)

플루트

나재령*

클라리넷

조성호*

호른

Samuel Seidenberg *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사원** 정태양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대리** 이미라 **사원** 서영재 차하영 김문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 다채로운 행사 참여의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이하 등급 전체 혜택 포함)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숙박 제공)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전용 혜택)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연 1회 2인 교통, 숙박 제공)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 교향악단 투어 (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에듀드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에듀드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원 온라인 가입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 전) KBS교향악단 이사장
백정호 (주)동성케미컬 회장 / 현) KBS교향악단 이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Cantata

고종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삼성전자 상근 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호수 (주)효석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문노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훈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애포트너즈 대표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진병울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재 (주)초록숲 대표

Nocturne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Q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